

## 朝鮮朝 山水時調의 修辭的 特性

崔東國\*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조 산수시조의 작품을 통해서 수사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는 시인의 체험을 토대로 상상력과 표현기교에 의해 창작된다. 작품성은 사물을 묘사하되 어떻게 기묘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기교의 효과에 달려 있다. 따라서 문인이 시를 짓는데 시어의 조탁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조선조의 문인들은 수사와 기교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를 雕蟲篆刻之徒라 하여 폄하했다. 이는 조선조의 문인들이 지나는 특별한 詩眼이다. 그들은 표현의 기교를 사물의 외형에 집착되어 솜씨의 교태를 부리는 잔재주라 인식했다. 그 이유는 기교에는 過情이 있고 그 속에 자만과 豪情 獨善이 드러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교는 인위적인 조작성이 있어 사물의 자연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인으로서의 예술정신 즉 匠人性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튼 기교는 기교로 자각되어서는 안 된다. 자각이 되면 詞理와 心意의 흐름이 막히고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사와 기교를 억제하는 대신 哲理의 情趣인 理趣를 중시하게 되었다. 항상 일상생활과 상관되면서 평범한 언어로 표현하되 味外之味를 느낄 수 있는 枯淡한 서정성을 중시했다. 조선조의 시조는 淸麗하고 華靡한 서정적 작품이 냉정하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으로부터 인생을 음미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자적하며 자연스러운 여유가 있는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因子다.

**핵심어** : 시조, 표현, 기교, 산수, 인생, 匠人性, 哲理, 理趣

\* 인천대

## 1. 序論

崔滋는 補閑集에서 '시에 있어서 新奇하고 絶妙하며, 逸越하고 含蓄이 있으며, 險怪 俊邁하며, 豪壯하고 富貴하며, 雄深하고 古雅한 것을 최상으로 삼았다.' 이는 수사와 표현을 작품에 있어서 요긴한 것으로 본 데서 온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문인들은 표현기교와 사물의 묘사에 제한을 가했다. 결과로 고려조의 최자는 미적종류를 34가지로 섬세하게 분류한 데 비해 조선조에 들어오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자가 上·次·病으로 분류한 미적내용이 조선조에 들어오면 次와 病으로 분류된 풍격 중 일부가 上으로 바뀌게 된 것이 특이하다. 이는 미의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시조 또한 이러한 사조의 흐름 속에 창작되었다. 소위 강호가 이에 해당한다. 인간과 자연이란 두 공간이 서로 조응되면서 형상화된 작품군을 강호가도라 이른다. 강호가도는 조선조 시가의 성격을 특성적으로 드러낸 시단이었다. 따라서 시조는 산수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주로 연구진행 되었고 시조문학의 본령을 이루다시피 했다.

현실과 자연은 사인들의 이념에 의해 설정된 공간이다. 그것은 사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출처관에 의해서이다. 이를 기재로 하여 인간현실과 산수는 서로 상관되고 의미를 상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시조라 하더라도 산수시로써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현실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인간현실에서 생활하더라도 또한 자연으로 뜻을 지향시킨다. 인간과 자연이란 두 공간이 서로 내포되면서 인간과 자연을 노래한다는 것은 修辭學的 측면에서 고려조의 미의식과 다른 특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 수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華靡剪去와 不事繪飾

문인이 시를 짓는 데는 詩語의 彫琢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서면 수사의 기교 즉, 조탁을 가하기를 일삼는 자를 雕蟲篆刻之徒라 비판하며 詩語 수식에 대한 기교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는 정도전 이래 퇴계, 율곡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논의된 시작법의 경구가 되다시피 했다.

선생의 시는 처음에는 매우 맑고 화려하였으나, 뒤에 와서는 화려한 것은 깎아 버리고, 오로지 진실하고 장중하며 담박한 데로 돌아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중략)……華와 實이 서로 견비하여 문질이 중정에 부합되었다……(중략)……요컨대 그 귀착점은 粹然하여 하나같이 正에서 나왔다.<sup>1)</sup>

|                                |                      |
|--------------------------------|----------------------|
| 훌륭한 곡식은 돌피 익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 嘉穀莫用稊熟美              |
| 가는 티끌도 오히려 거울 닦아 산뜻하게 함에 해로우니, | 纖塵猶害鏡磨新              |
| 정에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버리시지요,       | 過情詩語須刪去              |
| 노력하여 공부해서 저마다 날로 새로울지니,        | 努力工夫各日新              |
|                                | 「贈李叔獻」 <sup>2)</sup> |

퇴계는 화미한 詩語를 깎아 버리고 일상적인 간담한 맛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귀결했다. 서정 주체의 마음이 순정해야 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형상 의식이 기교에 의존하게 되고 그 기교에 의존했을 때는 稊熟의 미로 나타나 嘉穀을 해친다고 보았다. 시는 가곡의 미를 형상화해야지 제속의 미를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돌피와 같은 잡초를 아름답게 여기게 하는

1)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1」, 「言行通述」, “其詩初甚清麗 既而剪去華靡 一歸典實莊重簡淡 自成一家…華實相兼 文質得中…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

2)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5」

기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학문과 인격수양에 방해가 될까 염려해서이다.

그 첫 머리에 「돌아서 십릿 길 강마을 길을 오는데, 자는 새만 숲에 다님을 다만 스스로 아네」란 구절, 이 구절이 바로 그대가 남들이 미처 알아차릴 수도 없는 경지를 홀로 초연하게 터득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詩人の 취미로 논한다면야 역시 매우 뜻을 얻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을 한다는 뜻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바로 병통이 이러한 구절에 있지 않는가 걱정됩니다.<sup>3)</sup>

過情은 과장을 나타내고 긍호한 서정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인격수양의 장애가 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화미한 시도 돌파와 같은 잡초에 해당되는 제숙의 미를 두고 말한 것 같다. 제숙은 표현의 기교에서 오는 미를 비유한 것으로 이는 粹然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퇴계가 趙士敬에게 보낸 편지 속의 시평처럼 남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경지를 홀로 초연하게 터득하였다는 말은 과장이 나타나고 자부심이 지나쳐 말이 실행보다 앞섬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想을 지닌 시조 작품이 있다.

磯頭에 누었다가 깨드라니 돌이볼다  
靑藜杖 빛기집고 玉橋를 건너오니  
玉橋에 물근 소리를 자는 새만 아늦다

〈林仁老〉

이 작품도 퇴계가 평한 것처럼 남들이 미처 알아차릴 수 없는 경지를 홀로 초연하게 터득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학문을 한다는 뜻에

3) 李滉, 『退溪集 권23』“其首章 歸來十里江村路 宿鳥趨林只自知 此一句正是公所以自言其超然獨得於人不及知處以詩人趣味論之 亦甚得意 然以學問意思看來 正恐病處在此句上”

서 볼 때 병통이라 할 수 있다. 사물과 서정주체는 대등한 입장에서 以物觀物하지 못하고 감정이입이 뚜렷한데서 퇴계와 같은 비평이 나올 수 있다.

어찌 다듬고 꾸미서 정을 읊기고 마음을 방탕하기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 오<sup>4)</sup>

이 選集에서 선정한 시는 冲澹蕭散을 위주로 하고 수식을 일삼지 않는 시들이기 때문에, 自然스러운 가운데 깊은 妙趣가 있어서, 그 古調古意를 아는 사람이 적다. 唐·宋 이후 여러 작품의 品格들이 혹은 옛날에 미치지 못하나, 그 사이에 近體詩가 있어서 대개 雕琢의 기교가 없고 저절로 聲律에 맞았다. 그러므로 병행하여 선정하였다. 이 選集을 읽으면 그 淡泊함을 맛볼 수 있고...<sup>5)</sup>

이는 율곡이 밝힌 詩語의 修辭에 관한 평어이다. 시어의 조희수조와 조탁지교를 긍정하지 않았다. 시구의 회식과 조탁을 일삼지 말고 억제할 것을 희망했다. 이는 기교에 매이지 않은 자연스런 시문을 중시했다는 의미이다. 조선조 문인들은 인위적인 기교에 의지하지 않은 형상에서 묘취 있는 미를 최상으로 여겼다.

퇴계의 화미전거는 품격 고담으로, 율곡의 무조탁지교는 담박으로 귀결되었다. 시가는 화미한 文辭가 이루어낸 경계로 辭彩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나며 매우 富麗한 형상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기교를 부정한다면 표현수사에 문제가 있다. 조탁의교는 사물을 묘사하되 세련되고 기묘하게 하기 위한 수련의 공이다. 미적주체가 사물을 보고 때로 의인화하기도 하고 의물화되기도 하여 性情搖蕩하여 절묘한 의경을 형상화

4) 李珣, 『精言妙選序』,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5) 李珣, 앞의 책, “元字集曰 此集所選 主於冲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深有妙趣 古調古意 知者鮮矣 唐宋以下諸作品格 或不逮古 間有近體而皆無雕琢之巧 自中聲律 故竝選焉 讀此集 則味其淡泊…”

하는 것이 상례다. 조선조 문인들은 이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過情과 화미, 조탁의 교는 물의 외형의 집착에서 온다. 이는 내용[物性, 物理]을 가리게 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래서 율곡은 조희수조하면 이정탕심을 일으킨다고 하여 기교를 부리는 데 경계를 했던 것이다. 조희수조하면 화미하고 牽強作意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기교를 억제한 작품에서의 서정은 哲理的 정취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을 두고 이취가 理趣가 풍부하다고 말한다. 자연으로부터 인생을 음미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유유자적하며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여유롭게<sup>6)</sup> 나타난다. 퇴계와 율곡은 기질적 주장적 경향에서 중리적 방향으로 작품의 성격을 전환하였는데 이는 화려하고 미려한 미를 냉정하고 깊이 있는 미로 성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이어서 다루게 되는 주 내용이다.

### 3. 士人의 美意識

화미전거와 불사회식의 표현법은 무엇에 연유하는가이다.

벼슬이 貴타흔들 이내몸에 비길소나  
蹇驢를 밧비 모라 故山으로 도라오니  
어디서 急흔 비 혼줄기에 出塵行裝 시서고

〈申靖夏〉

조선조 사인은 누구나 공명을 바라는 바지만 현실에서의 공명은 욕망의 충돌에서 흥진이 일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탐욕이 뒤엉킨 현실

6) 吳戰壘(유병래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p.159.

을 시원히 벗어나고자 함이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단절할 수 없음은 그들의 이념에 연유한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流水 | 로다  
 세 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皎皎白駒는 머리마슴 흐논고

〈陶山十二曲 五〉

一曲은 어디미오 冠巖에 현 비훤다  
 平蕪에 너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樽을 노코 벗오는 양 보노라.

〈高山九曲歌 二〉

이 작품에서 보듯이 인간현실에는 자연을 지향해 있고 산수자연에서는 인간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자연 어느 것도 귀착을 하지 않은 결과다. 비집착에서 두 공간이 상호 열려있고 내왕을 하게 된다. 인간과 자연 어느 쪽도 독립되고 개별적인 공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자연을 좋아하는 데에는 어딘가 현실적인 인간을 넘어서고 싶다는 은밀한 초월원망(超越願望)이 엿보인다. 이것은 자연에의 도피사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항대립으로 자기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적인 왕래자로 자재(自在) 할 것을 꿈꾸는 발상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상화·실체화하는 것도, 인간을 왜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상호 매개적으로 어긋나며 나가는 가변성 속에서 문화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개체로서의 주체의식보다는 양의적인 관계의식이 강하게 세계와의 걸림들을 규정할 터이다.<sup>7)</sup>

조선조 사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인간을 초월하여 도피처로서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은 양가적인 관계다. 자연은 인간이해와

7) 이우환(김춘미 옮김), 『여백의 예술』, 현대문학, 2003, p.333.

존재근거 및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 주는 세계다. 자연과 인간은 양의 적인 왕래자로 자유자재한 것이지 서로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

너집이 길척냥 호야 杜鵑이 낮제운다  
萬壑千峰에 외籠笠 다닷는데  
기쫓츠 즈즐일 업서 곳 지논디 조오더라

〈무명씨〉

은거의 집에 울타리를 쳐 놓고 역사부재의 세계인 퇴고에 잠겨 독선한다. 조선조 문인들은 이러한 서정주체와 세계를 꺼린다. 결국 현실에 파묻혀 산수에 매몰되어 현실부정과 독선에 빠지는 생활을 긍정하지 않는다.

#### 4. 표현기교의 억제와 哲理

出하면 致君澤民 處하면 釣月耕雲  
名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호물며 富貴危機라 貧賤居를 호오리라.

사인들에게는 出處가 대절이요, 處하면 出로, 出하면 處로 향하는 일종의 이념적 기재이다. 이러한 비집착적 自在한 생활관이 미의식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 비집착에서 수사와 표현기교는 절제된다. 창작에 있어서는 세심한 계획적 절차로서의 양식인 기교가 유예된다. 즉 기교를 억제한다는 것은 표현상의 가치라기보다는 형식적 가치를 내포하는 예술적 匠人性이 약화된다.

莊子는 養生主 庖丁解牛와 達生의 梓慶의 일화를 통해 예술적 기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 그 중 재경의 일화를 들어본다.



재경이라고 하는 노나라의 명공이 나무를 깎아 거(악기이름, 또는 종교 따위의 악기를 거는 도구)를 만들었다. 작품이 완성되자 어떻게나 훌륭한지 보는 사람들은 귀신의 조화가 아닌가 하고 놀라며 감탄하였다. …〈중략〉… 그리고 이례를 재계하면 문득 자신의 사지와 육체의 형체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조정의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정신은 오로지 그 기교에만 전념하게 되어, 그밖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은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sup>8)</sup>

이 일화는 道와 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기는 곧 기능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재경이 기로부터 도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창작과정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작품을 창조하는 서정주체의 정신경계를 비유한 것이다. 유가는 이러한 서정주체를 기휘한다. 무위자연에서 오는 서정은 규범성이 없고 생활태도가 방일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技'의 속성은 技의 한계를 끝까지 넘어 技의 技를 더하도록 유도한다. 기교는 의미를 잃고 내용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조선조 문인들은 氣만 보이는 예술이 허위로 전락하는 것 같이 理를 타지 않는 기는 예술에서 기만 남게 되어 속기가 되거나 허기가 되는<sup>9)</sup> 것으로 판단한다. '技巧은 技와 巧의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기는 인간이 만든 도구에 의해 표현되는 기술의 세계요, 교는 그것을 교묘하게 표현해 내는 솜씨의 교태이다.'<sup>10)</sup> 技는 인간이 부릴 수 있어야지 그 속성에 휘말려 솜씨의 교태가 나타나면 내용은 은폐 증발되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기교에 의존하면 인위적 조작이 생겨 감정의 자연스런 유로가 차단된다.

8) 莊子, 外篇, 達生, “梓慶削木爲鐻 鐻成 見者驚猶鬼神 …〈중략〉… 齊七日 輒然忘吾有四肢形骸也 當是時也 無公朝 其巧專而外滑消 然後入山林 觀天性 形軀至矣”

9)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대출판부, 1998, p.129.

10) 김영기, 앞의 책, p.262.

## 5. 미적범주의 성격

조선조 문인들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음미를 내용으로 하는 철리적 성향이 강하고 쓸데없는 수식을 배제하고 섬세한 관찰과 개성적 표현을 중시하였으며 제재상에서는 일상생활에의 관심과 밀착이 두드러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서정주체가 묘사하고 있는 외물은 내용의 표피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깊고 유원한 사변의 세계가 자리한다.<sup>11)</sup> 결과로 시의 맛은 담담한 가운데 깊이를 지니게 된다.

禮字集은 精工妙麗한 것을 위주로 뽑았다. 비록 아로새기고 그려낸 꾸밈은 있으나, 음란·요염에 이르지 않는다. 이 集을 읽으면 정이 두텁고 뜻이 빼어나서 병들고 여윈 자가 가히 살을 붙일 수 있고, 메마른 자가 가히 꽃을 피워낼 수 있다.<sup>12)</sup>

울곡이 조희수조와 회식을 경계했지만 전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정공은 어느 정도 조희수식과 상통한 의미를 지닌다.

칠곡은 어드미고 楓岩에 秋色이 쫓타  
 清霜이 얹게 치니 絶壁이 錦繡로다  
 寒岩에 혼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라

이 작품은 고산구곡가 제1곡의 '一曲은 어드미고 冠巖에 희비친다.'에 비해 美麗하다. 울곡은 정언묘선서에서 문식을 빌어다가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작품을 부정하면서도 칠곡은 일종의 繪飾과 彫琢된 시어가 눈에 띄는 점은 특이하다. 초장의 '풍암에 추색이 쫓타'에서

11) 정민, 『한시미학 산책』, 서울출판사, 1996, pp.77-81.

12) 李珣, 『精言妙選』, 「禮字集序」, “禮字集曰 此集所選 主於精工妙麗 雖有雕繪之飾 而不至於淫艷 讀此集 則情艷意秀 瘦瘠者可以增肌 枯槁者可以發華矣”

'절벽이 금수로다'로 화려한 措辭를 쓰고 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 율곡은 정공묘려한 시풍을 긍정했다. 이는 마음이 비척하고 정서가 매마른 자에게는 정이 무르익고 의가 빼어나고 꽃처럼 충융한 정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율곡의 잔잔하고 담담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생활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인간풍정이 있어야 한다. 그저 이치만 좇다가 인간의 생활감정을 놓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春風和煦好時節에 범나뉘 몸이 되어  
 百花叢裏에香氣 젓저 노닐거니  
 세상에 이러한 豪興을 그 무허로 比喩소나

〈朴孝寬〉

율곡이 말한 조희수식이 정도를 지나쳐 淫艷의 경지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정당심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율곡의 시조는 화려한 가을단풍의 정경을 통해 정서를 풍염하게 살찌우고 가을의 미경에 眞樂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음염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선생은 일찌기 나의 시는 枯淡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우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신통치 않지만 읽을수록 의미가 깊어진다 라고 했다.<sup>13)</sup>

율곡이 말한 묘취는 담박과 고담의 미이다. 묘취의 묘는 갖가지 재미를 묘라 한다(妙 百般滋味曰妙). '읽으면 읽을 수로 깊어진다' 이는 言表에서 나타나는 미가 아니라 味外之味를 말한다. 이 미는 기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세계이다.

13)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5」, 嘗言吾詩枯淡 人多不喜 然於詩用力頗深 故初看雖似冷淡 久看則不無意味

後世의 학자는 實理를 구하지 않고 한갓 浮薄 한 꾸밈을 숭상하여 마음 속에 얻는 바가 없으니, 겉으로 공교로운 말에만 힘쓰고 남의 이목을 즐겁게 하기만을 취하니 세상에 玉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撰述에 공교롭게 하여 道義에 벗어나고 文辭는 번잡하나 이치는 막히고 말은 막히지 않으나 뜻은 통하지 못하니 이것이 俗儒들의 文이다.<sup>14)</sup>

평담과 고담 및 담박은 특별한 맛이 없다. 감정이입도 없고 묘사가 최대한 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도 言外의 깊은 뜻이 담긴 것이다. 퇴계가 처음 淸麗하고 華靡한 미에서 고담의 미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율곡도 美麗한데서 출발하여 冲澹의 미로 귀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조선조 사인의 성향과 시에 대한 인식상으로 볼 때 언외의 맛은 理趣이다. 이는 청려하고 미려한 세계를 기반으로 한 고담과 담박한 미를 말한다. 표현과 수사에 구속되어서는 이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송시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는 대부분 서정을 도와 모종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sup>15)</sup> 이러한 중리적 성향은 조선조 중엽 당시 학문의 발전이 컸으며 문인들이 주로 학자화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理趣의 理는 추상적이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추상적인 理가 아니다. 實相에 근원하여 實相을 벗어나지 않고, 實相을 빌려서 그 의미를 드러내지만,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므로 몽롱하면서도 뜻이 넘쳐나고, 또한 영롱하고 투명하여 여러 측면에서 관조할 수 있으며 여러 층차에서 음미할 수 있다.……(중략)……사물 묘사의 빼어난 솜씨와 진실된 감정표현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숭고한 인격까지도 음미할 수 있다.<sup>16)</sup>

14) 李珣, 앞의 책, 後之學者 不求實理 而徒尚浮躁 心無所得 而外爲巧言 取於悅人 而銜玉於世 是故其爲文也 工於撰述 而外於道義 辭繁而理礙 圓而意滯 此則俗儒之文也

15) 吳戰壘(유병래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p.145.

16) 吳戰壘, 앞의 책, pp.157-8.

理趣의 理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세계를 노래하는 경색된 경지는 아니다. 實相에 근원하여 見得한 實의 모습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흥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잇슬고

〈陶山十二曲 六〉

四時의 미적 경계를 통해 순환의 整然함을 보고 감흥을 일으키고 유행자연의 활발을 관조하고 읊은 노래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탁된 시어 없이 평이한 언어로 담담하게 표현했다. 사시순환의 정연함과 유행자연의 활발을 견득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哲理的 情趣를 느낄 수 있다. 美麗하진 않지만 자연으로부터 인생을 음미하고 깊이 있는 정취에 감싸이게 한다. 이것이 실상에 근원하여 실상에 벗어나지 않은 理의 相으로 철리적 정취를 풍긴다.

## 6. 結論

지금까지 이 글의 목적에 따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조의 시조가 主情的 경향에서 重理的 방향으로 미적 내용이 바뀐에 따라, 이전의 작품과는 수사법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인이 시어의 연탁과 조탁의 노력 없이 시를 지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표현기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조선조 문인들의 특별한 詩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匠人性에서 오는 작품성이 약화되고 솔직담백한 생활감정을 자연스럽게 直敘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교의 속성인 사물의 외형에 집착하여 교묘하게 표현해 내는 습

씨의 교태를 차단하게 된다. 기교는 기교로서 자각되어서는 안 된다. 기교가 자각되면 人爲的 操作的인 세계로 빠질 우려가 있다. 즉경생정의 자연스런 감정이 전개되지 못하고 詞理와 心意가 막혀 왜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어의 言表에 나타나는 시각적 아름다움보다는 哲理的 理趣를 중시하게 된다. 항상 일상생활과 상관되면서 평범한 언어로 표현하며 味外之味를 느낄 수 있게 고담한 서정을 형상화해야 한다.

枯淡과 淡泊은 이취를 주로 하는 작품들의 풍격들이다. 이러한 시는 자연으로부터 인생을 음미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유유자적하며 자연스러우면서 여유가 있는 작품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조는 哲理가 융화되어 情趣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미할 수 있게 만든다.

#### <참고문헌>

- 李 珥, 『精言妙選』, 보고사, 1999.  
 李 滉, 『退溪集』 1, 2, 민족문화추진회, 1976.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대출판부, 1998.  
 李敏弘,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성대출판부, 2000.  
 정 민, 『한시미학의 산책』, 솔출판사, 1996.  
 崔珍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96.  
 \_\_\_\_\_, 『古典詩歌의 美學』, 월인, 2003.  
 徐復觀(권덕주 외 역), 『中國藝術精神』, 동문선, 1990.  
 王甦(이장우 역), 『退溪詩學』, 퇴계학연구소, 1985.  
 吳戰壘(유병례 역), 『中國詩學의 理解』, 태학사, 2003.  
 韓國時調學會, 『時調學論叢』 제23집, 2005.

<Abstract>

## The Rhetorical Features of the Sijo During Chosun Dynasty

Choi Dong-K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rhetorical features of the Chosun Sijo through researching them. A poem has been made by imagination and rhetorics which are based on the poet's experience. The qualities of the poem have been determined by how the poet described the object oddly. So it is essential for the poet to struggle to make embellishments and artistic skills when he or she makes a poem. But the Chosun clerisy ostracized the poet who was trying to do these things mentioned above, which was a kind of special poetic point of view the Chosun clerisy had. They recognized embellishments and artistic skills as a resort to petty trick as a result of their sticking to the external form of the objects. The reason they thought them like this was that the Chosun clerisy thought the embellishments and artistic skills could show the self-pride and self-righteousness. Also, there were concerns on the distortion of the object nature by the artificial concoction. Because they can interrupted and distorted the stream of feeling and the original meaning, the artistic skills must not be recognized as the artistic skills of itself. As a result, they valued the poem made from restraining the rhetoric and artistic skills. They valued the poem which had common words related people's daily life, but was able to feel the simple lyricism. The poem based on these

features has remains as a work which makes people enjoy the nature, and face their life without any resorts, and which has the natural leeway.

*Keywords* : Sijo, experience, artistic skills, principle, nature, life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